

Zero Trade, Zero Balance

李 恒 燮 / 本會 國際部長

1988년은 1987년의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이번이 속출되었던 것 보다는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1987년은 많은 사람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충격적인 경제이변이 많았던 해라고 믿고 싶다. 주요 산업국들이 독자적인 무역흑자는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의하여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문제, 유럽의 실업자 문제, 주식시장의 붕괴현상,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차라리 부유한 국가들만이 갖는 문제인지 모른다.

소위 신생공업 국가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무역흑자에 따른 통상압력, 환율인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 상실 등 난제로 인하여 경제 구조적 일대 재편성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여름까지 달러화는 최고 50%까지 하락한 경우도 발생하였고 1986년부터 시작된 18개월 간의 오일가격 회복노력이 오일가격의 재차 하락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1988년의 미국 무역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란 무엇인가? 오일가의 하락, 달러화의 하락, 그 어느것도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달러화의 하락이 얼마나 미국의 무역적자를 메꾸어 주었는가? 미국의 이자율 상승은 제3세계의 채무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와 같이 팽팽히 대립되어있는 상충된 무역환경은 결국 새로운 무역전쟁을 유발시키고 말 것이다. 결국 1988년의 위험스러운 사태란 이와 같은 새로운 무역전쟁의 유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생 공업국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백기」를 들 것인가? 아니면 힘겨운 「무역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실로 힘든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다분히 보복적인 무역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는 날에는 비슷한 무역법안을 흉내내는 많은 국가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는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장 dynamic하고 총명한 새로운 무역질서를 확

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환율 조정, 이자율 조정, 자국시장 보호, 외국상품의 침투저지, 투자에 의한 산업독점, 자본을 이용한 외국산업 조종 등등 과연 이런 방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어느 서방 기업인은 시장점유문제를 토의하는 회의 석상에서 상대국과의 최선의 문제해결은 「Zero Trade, Zero Balance」라고 말하고 있다. 발전적 해결방법이 아니라 서로 외면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인 것 같다.

1920년~1930년대의 무역환경과 비교할 때 오늘날의 무역환경이 과연 「Zero Trade, Zero Balance」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 의회의 무역법안 통과절차, GATT 석상에서의 난상토론, 온갖 수단방법이 모두 동원되는 통상압력-시장개방 압력, 무역의 자유화 조치 등의 강력한 요구 등은 신생 공업국만이 겪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여름 Milan에서 열린 EEC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1992년까지의 3억2,000만 인구의 서구의 시장통합이라는 과제가 과연 실천될 것인가?

그렇게 되었을 때 EEC는 외국에 대하여 어떤 통상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정치적, 경제적 United States of Europe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세계적인 새로운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동양의 4Gangs 들은 어떻게 대처함이 좋을 것인가?

이들 신생 공업국들의 공통점은 동양적인 근면, 성실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일한다는 데 있는 것 같다. 느리지만 거북이의 근면성은 앞으로 혼란스러운 세계 무역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적을 이루어 갈 것이다.

기술과 자본으로 이루어 놓은 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서로 뒤엎혀 혼란스러운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의 세계시장속에서 잡음과 소음은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무역의 잡음을 control 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일까? Zero Trade, Zero Balance가 해답이 아니다. Protectionism은 더더욱 해답이 될 수 없다.